

사회복지시설 '직내괴' 피해자 62.5%

사회복지시설 신원 확인 이메일 48건 분석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이사장·원장 62.5%
 유형으로 괴롭힘·성희롱 64. %로 가장 많아
 직장갑질119 "100인 미만 노조가입률 1%"
 "온라인 노조 추진 중...4대 갑질 제보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 피해를 본 근로자 10명 중 6명이 가해자로 소속된 곳의 이사장·원장 등 '사용자'를 지목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들어온 신원 확인 이메일 제보 48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중 사용자(원장)가 30명(6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사 12명(25.0%), 기타 6명(12.5%) 순이었다.

갑질 유형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복수 통계)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31건(64.6%)이었다. 이어 ▲징계·해고 11건(22.9%) ▲임금 9건(19.8%) ▲근로계약 6건(12.5%) ▲노동시간·휴가 4건(8.3%) ▲기타 3건(6.3%) ▲임신육아 1건(2.1%) 순이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규모가 작고 사용자(이사장, 원장, 센터장 등)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대부분 직장을 그만둘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한 사례에 따르면, 인천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직원들에게 매달 1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강요하고, 연말 '후원의 날' 행사에 2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직원들에게 강제 노동을 강요하고, 연말에는 '이웃사랑' 행사에 직원들을 동원해 선물 포장, 배달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 노동을 요구했다. 이사장 노모의 팔순 잔치에 직원들을 동원해 요리와 노래, 설거지와 청소도 시켰다.

또 다른 제보는 직장갑질119에 "사단법인에 속해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법인에서 시설장의 동의도 없이 시설을 휴관, 폐관하겠다고 협박하고 및 대표이사의 폭행, 급여 상납 요구 등 갑질이 너무 심각한 수준인데, 법인을 탈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라며 "시군구에서는 비영리법인이라서 터치하기가 애매하고 힘들다고 한다"고 했다.

실제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14일부터 23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95명) 중 29.5%(28명)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 같은 사회복지시설 등 1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조 가입률이 1%에 불과해, 직장갑질119는 온라인노조를 추진하고 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 소규모사업장이고 업종의 특성상 폐쇄적이며 특히 위탁기관(지자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사업장일수록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다가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노동자들도 상대적으로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자들이 뭉쳐서 집단으로 대응하는 것"이라며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는 1호 업종으로 현재 사회복지시설 노동자 모임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적인 직장 갑질에 대한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추진위원회는 이날부터 사회복지시설 전문 변호사와 노무사들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4대 갑질(후원 강요, 강제 노동, 종교 강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법률적 지원, 근로감독 청원, 언론제보 등의 방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갑질을 줄이기 위한 활동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감독을 요구할 예정이다.



고흥경찰, 스쿨존교통사고예방 위한 캠페인 실시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영남면 영남초앞 삼거리에서 영남파출소등 각 기관 단체원과 영남초 교원 및 학생등 약 40여명이 모여 스쿨존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순천경찰, 순천 사회단체와 업무협약식 개최

순천경찰서(서장 국승인)는 16일 순천시 주요사회단체 5개 소속 대표와 치안활동의 참여와 협력을 내용으로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무안경찰, 찾아가는 노인대상 범죄예방교육 전개

무안경찰서(서장 강용준)는 지난 17일 노인 일자리 사업 설명회에 앞서 무안 순달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하여 노인 약 500명을 대상으로 노인 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진도소방, 솔비치 리조트 119 안전 체험장 운영

진도소방서(서장 박천조)가 최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진도 솔비치 리조트에서 119안전체험장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기자



담양소방, 봄철 행사장 관서장 현장 지도점검

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봄철 화재예방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봄철기간동안 개최되는 행사장을 찾아 적극적인 현장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주 동부소방, 본서 주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노유자시설에서의 화재 발생 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유자시설 3곳을 대상으로 17일~19일(3일간) 본서 주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광주·전남 멧돼지 출몰 주의... "등 돌리고 큰소리 안돼요"

전남 멧돼지 출몰 소방 출동 매년 평균 100건

최근 광주·전남 지역 민가·도심·도로 곳곳에서 멧돼지 출몰·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남 지역 멧돼지 출몰에 따른 출동건수는 2021년 98건, 2022년 86건, 지난해 111건으로 매년 평균 100건 발생하고 있다.

영산강환경영역청이 집계한 전남 지역 멧돼지 포획건수도 2021년 4997건, 2022년 4913건, 지난해 6186건으로 3년새 1000건 이상 늘었다. 광주 지역 포획건수도 2021년 172건, 2022년 228건, 지난해 618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멧돼지 출몰에 따른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16일 오후 2시37분께 구례군 문척면의 한 수박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A(65·여)씨가 멧돼지에게 습격 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옮겨졌다. A씨는 수박을 먹던 멧돼지를 쫓으려다 변을 당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11월25일 곡성군에서도 B(82·여)씨가 민가로 내려온 멧돼지에게 물려 손가락이 절단되기도 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멧돼지가 도심에 출몰해 시민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지난 2019년 10월30일 멧돼지가 여수시 한 아파트 단지에 출몰해 사살 포획됐다.

지자체는 서식지 감소 등으로 멧돼지가 손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는 민가를 찾아 내려오면서 출현 빈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1월~1월 짝짓기 시기 영역다툼에서 밀려난 멧돼지들이 도심에 나타나기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된 멧돼지는 평균 몸길이가 1.5m이며 몸무게는 50~280kg에 달한다. 멧돼지에 발허거나 물리면 크게 다치거나 숨질 수 있다.



전문가는 멧돼지를 만날 경우 등을 보이지 말고 자극할 만한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범기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사무국장은 "동물은 사람이 소리를 내거나 큰 동작을 할 경우 위협 신호로 느끼고 공격할 수 있다"며 "놀라더라도 소리를 지르지거나 등을 돌리지 말고 멧돼지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천천히 안전한 시설물로 대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대구대회

지난 17일 대구 중구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열린 420장애인 차별철폐의날 대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광주경찰, 치안데이터 분석 통해 효과적 범죄·예방 대응

광주경찰이 각종 과학적 치안 데이터를 치밀하게 분석, 효과적인 범죄 예방·대응에 나선다.

광주경찰청은 17일 오전 청사 회의실에서 '범죄 예방·대응 전략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올해 1분기 광주 지역 내 범죄 발생 분석, 광주청·일선 경찰서별 1분기 추진사항과2분기 범죄 예방·대응 전략 발표, 현장 의견 수렴, 자유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범죄위험도 예측·분석시스템(Pre-CAS),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Geo-Pros), 112 포털 등 각종 치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한창훈 광주청장과 생활안전부장, 수사부장, 각 부서 과장 등 정 지휘부와 각 경찰서장 등 25명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시민 체감 안전과 직결되는 절도·폭력 범죄의 예방·대응에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 경찰력을 집중 운용하는 방안을 깊이 논의했다.

광주경찰은 앞으로도 범죄예방대응·전략 회의를 매달 1차례 이상 수시로 개최한다. 회의 결과를 토대로 범죄예방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광주형 범죄예방 정책을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한창훈 광주경찰청장은 "데이터 기반의 치안 수요 예측과 사회적 취약 요소를 분석, 실효성 있는 범죄 예방·대응 활동을 강조했다. 또 경찰 조직 재편 핵심으로 평가 받는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의 안착과 효과적 운영을 위한 꾸준한 수정·보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슬비기자